



김제시는 **AI(조류인플루엔자)** 조기종식을 위하여
민·관·군 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11월 21일 금구면 소재 오리농장에서 AI가 최초 발생하여 방역대책을 추진 중 12월 13일 공덕면 오리농장에서 2차 발생하였고 12월 21일 산란계 밀집지역인 용지면에서 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 종식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승복 시장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민·관·군이 협력해 총력 대처하였다.

용지 밀집사육 지역은 65호에서 170만여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2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추가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농장 중심 보호지역(3km)내 살처분을 결정하고 민·관·군 등 3,122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지난 12월 28일까지 64농가 167만수에 대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완료하는 등 AI방역에 총력 대응해왔다.

특히 살처분 과정에서 전국 최초 군병력을 투입하였고 살처분 방법을 랜더링, FRP통, 고온건조분쇄방식, 일반매몰 등으로 다양화하여 살처분 기간을 단축하였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반매몰지도 최소화하였다.

이승복 시장권한대행은 매일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관련 실과소, 경찰서,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살처분 거부농가에 대해 시 간부공무원,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167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시작 8일만에 완료 하는 등 AI 확산 예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다.

현재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으나 거

점 소독시설 4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매몰 후 살처분 농장에 대한 소독지도와 지하수 수질조사 등 매몰지에 대한 주기적 특별점검은 물론 ▶만경강·저수지 등 철새도래지 통제 순찰 ▶마을방송을 통한 소규모 농가 방사금지 및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홍보 ▶관내 소류지(128개소) 전담공무원 지정 출입자 통제 관리 ▶농협 광역살포기 이용 만경강 제방도로 집중 소독 ▶소류지 준설공사 현장에 대한 방역차량 및 살수차를 이용한 소독 강화 등 철새도래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증가로 외부에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높으므로 귀성객 및 시민들이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17. 1. 5. 가축 매몰지 현장점검



AI 인체감염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일반 국민 행동 수칙

-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 2 야생조류·가금류·고양이 등 사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세요.
-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가급적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발생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하세요.**
-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주세요.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 수칙

- 1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잘 씻어야 합니다.
- 2 닭, 오리 축사 출입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며, 축사에서 나온 후에는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 3 농장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 4 농장소독은 매일 1회이상 실시하며, 야생조류 등 출입을 차단합니다.
- 5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합니다.
- 6 AI 발생지역에서는 발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합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바로알기

<p>Q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p> <p>A 야생 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p>	<p>Q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나요?</p> <p>A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눈, 코, 입,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p>	<p>Q 우리나라에는 AI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p> <p>A 2003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p>
<p>Q 이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p> <p>A 우리나라에는 아직 감염자가 없지만,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16명이 H5N6형 AI에 감염되었고 그 중 10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small>* 대부분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생닭 및 생오리를 인체거나 접촉전염</small></p>	<p>Q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괜찮을까요?</p> <p>A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닭·오리 도축장에서 도축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하여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p>	<p>Q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p> <p>A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하고, A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 중첩 감염을 막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p>
<p>Q AI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p> <p>A AI인체감염 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p>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AI 차단방역요령

- 1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 생석회 도포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반드시 농장 주변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
하고, 분변 위에 소독액을 뿌린 후에 제거
- 2 농장 내 축사별 소독조 설치·운영 및 축사별 전용장화
비치·착용
- 3 농장경계,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치고 그물망 설치
계분벨트, 팬 공간, 배수로, 전기시설 등을 통해 야생동물이 출입
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하고 설치한 그물망을 점검하여 필요 시 보수
- 4 축사왕겨창고, 퇴비사 등에 야생조류·야생동물이 드나들지
않도록 문단속 등 유입 차단 철저
- 5 야생조류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문단속 철저
- 6 쥐 등 야생동물이 철새 분변을 묻혀 AI 원인체를 유입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구서작업 및 야생동물 유입 차단 실시
쥐 등 야생동물이 야생조류 분변접촉을 통해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
- 7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통제 및 세척·
소독 철저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이 농장 출입 시에는 차량 및 개인소독 철저
- 8 농장 내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료·왕겨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농장 주변에 잔목잡초를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
- 9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가 출몰하는 논·밭·저수지 등 인근
지역 출입 자제
- 10 축주·종사자의 경작지 방문한 후 농장 복귀 시, 작업복 교체,
착용 신발·세척·소독 및 세안·손씻기 철저